

프랑스의 학생 대상

영화관 이용료 및 실태 조사

KOFIC

프랑스의 학생 대상 영화관 이용료 및 실태 조사

영화진흥위원회 프랑스 통신원 김민채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6 년 6 월 15 일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 층, 14 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6

Contents

01

들어가는 글 / 1

02

학생 대상 영화 입장권의 가격 분석 / 2

03

학생의 영화 관람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제도 / 6

04

2015 년 학생 관객 비율 / 7

05

나오는 말 / 10

1. 들어가는 글

프랑스는 학생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학생에 대한 혜택이 많다. 프랑스 정부는 학생이 각종 문화 생활을 부족함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에 무료 혹은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할 수 있는데, 이는 영화관도 예외가 아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프랑스의 학생들의 영화관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학생 대상 영화 입장권의 가격 분석

1) 프랑스 학생 대상 영화 입장권의 정의

프랑스에서 학생 대상 영화 입장권은 할인 입장권에 포함되어 정상가보다 보통 3-4유로 저렴하다. 보통 학생증을 제시하거나 나이를 증명함으로써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 입장권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프랑스 영화관에서는 대부분 나이 기준으로 요금을 분류, 책정하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초, 중, 고등 교육 기관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모두 포함)에 소속되었음을 의미하는 '학생'이라는 개념은 26세 미만 관람객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26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으로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 영화 입장권의 종류를 구분하고 종류별로 가격을 매기는 것은 개별 영화관의 재량에 따른다. 같은 체인 영화관이라도 그 분류와 가격이 지점마다 다른데, 보통은 '12세 미만', '14세 미만', '18세 미만', '26세 미만', '학생'의 다섯 가지 분류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학생 대상 영화 입장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다섯 분류는 모두 할인 입장권에 속하는 것으로 가격은 영화관마다 상이하다.

1.1) 프랑스의 영화 입장권 종류와 특징

1.1.1) 프랑스의 영화 입장권 종류

영화관의 수익 관리에 관한 1996년 3월 4일 법률(Arrêté du 4 mars 1996 relatif au contrôle des recettes dans les salles de spectacles cinématographiques) 제 5항에 의하면, 프랑스의 모든 영화 입장권은 다음의 다섯가지 항목 중 하나에 속하게 되어있다.

- 정상 요금 입장권 (Des billets à tarif plein)

정상 요금 입장권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26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격은 2016년 기준, 파리 고몽 오페라(Gaumont opéra)가 11.9유로, 파리 UGC 베르시(UGC Bercy)가 11.1유로, 루미노르 호텔 드 빌(Luminor Hôtel de ville)은 8.5유로이다. 멀티 플렉스 영화관이 아닌 상영관을 2-3개 보유한 소규모 영화관들의 경우에는 가격이 8유로선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 할인 요금 입장권 (Des billets à tarif réduit)

할인 요금 입장권은 14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요금, 학생 혹은 26세 미만 관객 요금, 조조 할인 요금, 65세 이상의 노인 요금, 단체 요금, 실직자 요금, 장애인 요금,

다자녀 가구 할인 요금 등 영화관에 따라 형태와 가격이 다양하다. 파리 고몽 오페라(Gaumont opéra)의 경우, 12시 이전 조조 요금이 7.9 유로, 14세 미만 요금이 4.5 유로, 65세 이상 요금이 9.2 유로, 학생 혹은 26세 미만 요금이 8.9 유로로 책정되어 있다. 파리 UGC 베르시(UGC Bercy)의 경우에는 조조 요금이 6.7 유로, 14세 미만 요금이 4.5유로, 학생 요금이 7.9 유로, 26세 미만 요금이 주중 4.9유로와 주말 및 공휴일 7.9유로, 20명 이상 단체 요금이 6.7유로이다. 뤼미노르 호텔 드 빌(Luminor Hôtel de ville)의 경우, 학생, 실업자, 장애인, 65세 이상, 다자녀 가정 등을 할인 요금으로 책정 7유로에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12세 미만의 아동 가격은 5유로, 단체 요금은 4유로로 책정하고 있다. 할인 요금으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학생증,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추가 요금 입장권 (Des billets "supplémentaire")**

추가 요금 입장권은 이미 입장권을 보유하고 있는 관람객이 3D 등의 특수 영화를 관람하고 싶을 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표시한 입장권이다. 파리 고몽 오페라(Gaumont opéra)의 경우 3D 영화는 2유로의 추가 요금이 있다.

- **무료 입장권 (Des billets destinés à constater les entrées gratuites)**

무료 입장권은 기업, 기관에서 복지를 위해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영화 입장권인 Chèque Cinéma Universel (CCU)을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입장권이다.

- **정액권 (Des billets correspondant aux formules d'accès au cinéma donnant droit à des entrées multiples)**

정액권은 월 정액권(1인 혹은 2인), 5회권, 10회권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UGC의 경우, 모든 UGC와 MK2 영화관, 이들과 제휴한 소규모 영화관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UGC illimité라는 월 정액 카드를 발급하는데, 26세 이상 1인은 월 21.90유로, 2인은 36.80 유로이며, 26세 미만은 월 17.90 유로를 지불하면 된다. 이 정액카드는 보통 1년 단위 계약이다. 파테-고몽도 이와 비슷한 LePass라는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가격은 UGC와 동일하다. 월 정액권 이외에 5회권, 10회권 등의 정액권도 판매하는데, 주중에만 사용 가능한 경우, 주중, 주말 상관 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 3D 영화에 사용 가능한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다. 5회권의 경우 보통 32유로-45유로 선이다. 이러한 형태의 정액권은 보통 사용 기한이 한 달, 세 달 등으로 정해져 있다. 소규모 영화관에서도 정액권을 발급한다. 뤼미노르 호텔 드 빌(Luminor Hôtel de ville)의 경우, 5회권은 29유로, 10회권은 52유로이다.

1.1.2) 프랑스의 영화 입장권의 특징

프랑스 영화 입장권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입장권의 가격은 각 영화관의 재량에 맡김

1996년 3월 4일 법률은 입장권의 가격이 아니라 종류 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입장권의 가격은 영화관마다 다르다. 할인 입장권의 경우만 살펴봐도, 종류가 영화관마다 1개 부터 5개 정도까지 다양한 편이다. 할인 입장권의 가격이 모두 동일한 영화관도 있는가 하면, 할인 입장권의 종류만큼 가격이 다양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 요금은 7유로 ~ 9 유로 정도로 정상 가격 대비 각각 1.5유로 ~ 3.5유로 저렴하다. 3D 등의 특수 영화의 경우, 2유로의 추가 요금을 받고 있는 곳도 있다. 학생이 3D 영화를 볼 경우, 가격은 '학생 요금 + 3D 추가 요금 + 3D 안경값 1유로'로 계산된다. 월 정액권을 사용할 시에는 3D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정액 요금이 잘 발달되어 있음

프랑스는 영화 입장권의 정액 요금이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이를 통해 관객은 영화를 보는 요일, 시간, 빈도수 등 자신의 패턴을 고려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 영화 입장권 할인 행사가 빈번한 편

프랑스는 영화 입장권 할인 행사가 빈번한 편이다. 무료로 발급 가능하는 영화관 회원 카드를 소지한 관객들에게 영화 입장권을 할인해 주는 행사도 있고, 5월 달에 열리는 프랭탕 뒤 시네마(Printemps du cinéma), 칸 영화제 기간에 맞춰 열리는 영화 축제 등 행사 기간에는 4유로 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1.2) 입장권 가격 별 관객수

아래의 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의 입장권 가격 별 관객 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표 1] 입장권 가격 별 관객 수 (단위: 백만 명)

표 내용: 입장권 가격별 관객수를 보여준다. 무료 입장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대비 증감폭
3유로 미만	7.6	7.3	6.4	5.4	5.7	5.6	6.7	5.6	5.7	5.5	-3.2%

3유로-3.99 유로	8.7	8.3	12.3	15.5	13.8	10.5	7.6	10.3	10.0	6.7	-32.4%
4유로-4.99 유로	20.4	18.6	18.5	20.2	20.9	26.4	21.8	17.4	33.1	35.9	+8.4%
5유로-5.99 유로	66.4	63.7	65.8	64.7	62.6	66.5	63.9	60.5	56.9	50.7	-11.0%
6유로-6.99 유로	41.7	39.7	42.0	40.8	39.1	41.7	39.1	38.4	37.0	36.1	-2.5%
7유로-7.99 유로	13.6	12.1	13.5	18.0	21.8	21.9	21.5	20.6	21.4	23.5	+9.8%
8유로-8.99 유로	17.1	14.5	15.1	15.6	17.3	18.0	16.7	15.2	14.1	12.9	-8.7%
9유로-9.99 유로	12.4	13.5	15.0	13.4	13.7	12.8	9.2	8.4	10.9	12.7	+16.6%
10유로 이 상	0.7	0.7	1.8	8.1	12.2	13.8	17.1	17.3	19.9	21.2	+6.6%
총	188.8	178.5	190.3	201.6	207.1	217.2	203.6	193.7	209.1	205.3	-1.8%

자료출처: 『2015년 CNC 결산』, CNC, 발행일 2016년 5월

- 가장 높은 비중의 입장권 가격대는 5유로에서 7유로 사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관객수가 가장 많은 입장권의 가격은 5유로에서 7유로 사이이다. 이 가격대의 입장권을 구매하여 영화를 본 관객의 수는 2014년에 9390만 명, 2015년에 8680만 명으로 총 판매된 입장권의 44.9% (2014년), 42.3% (2015년)을 차지했다.

- 5유로 미만의 입장권은 전체 판매 입장권의 23.5%를 차지

2015년에는 총 판매된 입장권의 23.5%가 5유로 미만이었다. 이는 2014년 대비 0.2%가 증가한 수치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영화 입장권의 4유로 판매 정책의 영향으로, 2014년부터 4유로-4.99유로 사이의 가격대로 판매된 입장권 수가 크게 늘었다. 2015년부터 몇몇 영화관에서는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영화 입장권을 4유로가 아닌 4.5유로에 판매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5년에는 4유로-4.99유로 대의 영화 입장권의 수가 전년 대비 8.4% 증가한 3530만 장, 전체 판매 입장권의 17.5%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의 15.8%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에 판매된 4유로 입장권의 수는 1870만 장으로 2014년 2070만 장보다 감소했고, 4.5유로 입장권의 수는 930만 장으로 2014의 350만 장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3. 학생의 영화 관람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제도

- 14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관객을 위한 영화 관람료 4유로 정책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14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들의 영화 관람료 4유로 정책은 기존 5.5유로 ~6유로의 영화 입장권을 인하한 정책이다. 2014년 CNC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으로 2014년 상반기에 969만 명의 청소년 관객이 영화관을 방문, 정책 이전에 비해 관객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 정책이 강제적인 것은 아님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화관에 따라 이 정책을 따르는 곳도 있고, 따르지 않는 곳도 있으며, 가격도 4유로인 경우도 있고, 4.5유로인 경우도 있고,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 영화 공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영화관 방문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NC)와 각 학교의 주도아래 운영 중인 프로그램, '학교와 영화관(École et cinéma)', '영화 중학교(Collège au cinéma)', '영화관에서의 고등학생(Lycéens et apprentis au cinéma)'을 통해 학생들은 3유로 미만의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연 150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영화관에 자주 가지 못하는 소외된 학생들에게 영화관의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 영화 월 정액제

2000년경부터 시판되기 시작하여 15년 이상 지속되어오고 있는 영화 월 정액 요금 제도는 해가 거듭될 수록 혜택이 늘어다고 있는 추세이다. 성인 1인 정액 요금에서 시작하여, 2007년에는 2인 정액 요금, 올해 초 UGC는 26세 미만을 위한 할인된 정액 요금 제도 (한달에 17.90유로)가 신설되었다. 영화 월 정액제 출범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이 배급사와 독립 영화관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지만, 오늘날 많은 영화관 (일부 독립영화관은 파트너십을 통해)에서 이 정액 요금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요금제로 영화를 보는 관객은 총 관객의 25% 정도(UGC의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 1] 26세 미만을 위한 UGC의 새로운 정액 요금 제도



자료출처: <http://ecrannoir.fr/blog/blog/2016/01/28/ugc-lance-une-carte-illimite-pour-les-jeunes/>

4. 2015년 학생 관객 비율

CNC가 설문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메트리(Médiamétrie)에 의뢰하여 시행된 두 조사 (나이에 따른 관객 비중, 직업에 따른 관객 비중) 결과를 통해, 2015년 학생 관객 비율이 어떤지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의 표는 2015년에 영화관을 방문한 관객의 나이에 따른 비율 정도를 보여준다.

[표 2] 2015년 나이에 따른 관객 비율

표 내용: 설문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메트리(Médiamétrie)의 6세 이상 관객 대상 설문 조사(75000 Cinéma) 결과					
	전체인구대비 비율 (단위: %)	연령별 전체인 구대비 관객 비율 (단위: %)	전체관객대비 비율 (단위: %)	전체입장대비 비율 (단위: %)	평균 영화관 방문 횟수
6-10세	6.7	84.3	8.6	5.9	3.6
11-14세	5.4	85.1	7.0	5.2	3.9
15-19세	6.4	90.5	8.8	9.8	5.9
20-24세	5.9	87.3	7.8	9.4	6.3
25-34세	12.8	70.7	13.7	14.3	5.5
35-49세	21.0	68.5	21.8	17.4	4.2
50-59세	14.3	54.4	11.8	11.8	5.3

60세 이상	27.4	49.2	20.4	26.1	6.7
총	100	66.0	100	100	5.3

자료출처: 『2015년 CNC 결산』, CNC, 발행일 2016년 5월

- 25세 미만 전체 인구의 86.8 %가 2015년 영화관을 방문

CN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25세 미만 전체 인구의 86.8 %가 2015년 영화관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5년 25세 미만의 관객은 전체 관객수의 32.2 %를 차지하여 2014년의 31.3 %에 비해 2.7 % 상승했다. 이들의 수는 총 1260만 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993년의 1290만 명 이후 가장 높았다. 연령별 전체 인구 대비 관람객 비중을 살펴보면, 25세 미만의 경우 100명 중 84명 ~90 명이 영화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15 ~ 19세의 경우 100명 중 90.5명 영화관에 방문, 이 연령대의 영화관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15년, 14세 미만의 아동 610만 명이 영화관을 방문

2015년에는 14세 미만 아동 관객의 수가 6.0% 상승하여 610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1993년 관객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14세 미만 아동 관객의 84.7 %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영화관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6세 이상 10세 미만의 관객의 수는 2014년보다 11.5 %나 상승한 340만 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또한 199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반면 11세 이상 14세 미만의 관객수는 270만 명으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15년 전체 관객 대비 14세 미만의 학생 관객수의 비중은 15.6 %로 일년 전의 14.7%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이들의 관람 빈도는 2015년 평균 3.8회로, 2014년의 4.3회보다 감소하여, 전체 입장대비 비중은 낮아졌다.

[표 3] 2015년 직업에 따른 관객 비율 (학생)

표 내용: 설문조사 전문기관 메디아메트리(Médiamétrie)의 6세 이상 관객 대상 설문 조사(75000 Cinéma) 결과					
	전체인구대비 비율 (단위: %)	연령별 전체인 구대비 관객 비율 (단위: %)	전체관객대비 비율 (단위: %)	전체입장대비 비율 (단위: %)	평균 영화관 방문 횟수
중고생 및 대학생	22.1	88.1	29.5	26.8	4.8

자료출처: 『2015년 CNC 결산』, CNC, 발행일 2016년 5월

- 중고생과 대학생의 관객수는 2014년 대비 3.0 % 상승

2015년, 중고생과 대학생은 평균 4.8회 영화관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인구인 퇴직자(평균 7회 방문), 실업자(평균 5회 방문)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낮은 수치이다.

2015년에는 2014년보다 1.5% 상승한 학생 총 인구의 88.1%가 영화관이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작년 프랑스 총 학생 100명 중 88.1명이 영화관을 방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전체 관객 대비 학생 관람객의 비율은 2014년보다 3.0 % 늘었지만, 그들의 전체 입장 대비 비율이 3.7 % 감소한 것으로 유추해 볼 때, 학생들의 영화관 관람 빈도가 낮아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나오는 말

학생 대상 영화 입장권의 가격 분석, 학생의 영화 관람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제도, 2015년 학생 관객 비율, 세 가지 관점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프랑스의 학생 영화관 이용 실태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영화 입장권의 가격이 관객 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일 것

영화 입장권의 가격은 관객수와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201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중인 14 세 미만 아동, 청소년 관객의 영화 입장권 4 유로 정책이 해당 연령대의 관객수 증가를 이끌었음은 이미 수치로 확인된 사실이다. 학생의 영화관 이용료와 학생 관객수 사이에 존재하는 정확한 상관 관계는 찾기 힘들지만, 프랑스의 2016 년 최저 시급이 9.67 유로라는 사실, 학생의 영화관 이용료가 평균 7 유로에서 9 유로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 2015 년 한 해 25 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 100 명 중 90 여 명이 영화관을 찾았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화 관람료가 학생들의 영화관 출입을 늘리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 정부가 평소 영화관에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 수치는 쉽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액요금의 이점

프랑스 영화관 입장권 가격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정액요금의 존재이다. 횟수에 상관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이 정액요금 덕분에 프랑스 사람들은 부담없이 영화관을 찾을 수 있다. 가격을 고려한다면, 한 달에 3-4편 정도 영화를 보는 사람은 정액요금이 훨씬 저렴하다. 정액요금을 통해 볼 수 있는 영화들의 수가 많다는 것도 프랑스 영화관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처럼 한 편의 영화를 2~3관에서 상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멀티플렉스영화관에는 보통 상영관 수만큼의 영화가 상영중이다. 또한 중소영화관과의 제휴를 통해 더욱 다양한 영화의 관람이 가능하다.

사실 이러한 모든 특징은 프랑스 문화 정책 전반과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 프랑스 대부분의 문화 시설의 문턱은 학생들에게 매우 낮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본다면, 프랑스에서 영화 입장권의 학생 할인은 전혀 신기할 것이 없는 일이다.

[자료출처]

『2015년 CNC 결산』, CNC, 발행일 2016년 5월

『UGC lance une carte illimité pour les jeunes』, <블로그 ecrannoir.fr>, 발행일 2016년 1월 28일 (<http://ecrannoir.fr/blog/blog/2016/01/28/ugc-lance-une-carte-illimite-pour-les-jeunes/>)
프랑스 국립영화센터 CNC (www.cnc.fr)

파리 고몽 오페라(Gaumont opéra) (<http://www.cinemasgaumontpathe.com/cinemas/cinema-gaumont-opera>)

파리 UGC 베르시(UGC Bercy) (<http://www.ugc.fr/cinema.html?code=BERCY>)

뤼미노르 호텔 드 빌(Luminor Hôtel de ville) (<http://www.luminor-hoteldeville.com>)

알로 시네(<http://www.allocine.fr>)